

## 아유르베다 5원소설과 서양 원소이론 비교 고찰

최정순 · 이거룡\*

선문대학교 일반대학원 통합의학과

### A Comparative Study of Ayurvedic Five-element Novel and Western Element Theory

Jung-soon Choi · Geo-ryong Lee\*

Graduate School of Integrative Medicine, Sunmoon University, Asan 31460, South Korea

(Received February 24, 2021 / Revised February 24, 2021 / Accepted March 11, 2021)

**Abstract Purposes:**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auses of limitations of modern western science and philosophy through Ayurvedic thought, and to seek the path of holism for the development of national healing projects. **Methods:** Therefore, it was inferred that the background of modern Western civilization and the reality of the national healing project would share the flow. In order to examine th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East and West's 'recognition of the body and the mind' and the 'perspective on the origin of existence' was examined,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Ayurvedic five-element novel were examined. **Results:** Through that process, the "mind and body dualism" in the West and the absence of the "empty element(空 Śūnya)" in Western four-element novels were pointed out as the cause of the limitations. In the sense that the 'empty element' is an invisible world and an immaterial world, it was concluded that the absence of justice was a limitation of Western civilization and a problem of the reality of the national healing project. **Conclusions:** I hope that this study will lead to continuous research on Ayurvedic ideology and research in the field of natural healing, thus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national healing projects and leading to health, well-being, and self-healing of the people.

**Key words** Ayurveda, Śūnya, Elemental theory, Healing project, Holism

**초록 목적:** 본 연구는 아유르베다 사상을 통해 현대 서양 과학과 철학의 한계의 원인을 고찰하고, 치유사업 발전을 위한 홀리즘의 길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현대 서양 문명이 오늘의 한계에 이르게 된 배경과 치유사업의 현실이 그 맥을 함께 할 것이라 추론하였다. **방법:** 이를 살펴보기 위해 동서양의 '몸과 마음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존재의 근원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아유르베다 5원소설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결과:** 그 과정을 통해 서양의 '심신이원론'과 서양 4원소설에서의 '공(空)의 부재'를 한계의 원인으로 지목하게 되었다. '공(空)'이 보이지 않는 세계, 비물질의 세계라는 점에서 공의 부재가 서양 문명의 한계인 동시에 국가 치유사업 현실의 문제라고 결론짓게 되었다. **결론:** 본 연구가 아유르베다 사상의 지속적인 연구와 자연치유 분야의 연구로 이어져 치유사업의 발전의 기초정보가 되고, 국민의 건강과 웰빙·자기치유를 기대하여 본다.

**주제어** 아유르베다, 空Śūnya, 원소설, 치유사업, 전일주의

### 서 론

현대는 동양과 서양·과거와 미래·몸과 마음·사람과 자연·건강과 질병 등 시공간뿐 아니라 철학과 문화 종교 분야 등 대부분에서 통합을 이야기하고 있다. (Graf, 2012. Wilson,

2014. Lee, 2017). 현대는 전일론(holism), 홀리스틱(holistic)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Shin, 2018). 서양과학의 이원론적 세계관을 동양의 전일론적 우주관이 채우고(Shin, 2018), 양자물리학과 같은 현대 과학이 동양의 심신일원론을 증명하고, 현대의 서양 철학이 오래 된 동양의 사상을 지지하면서

(Shin, 2018), 통합적이고 전일론적 입장에서 인류의 안녕과 치유를 도모하고자 하는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에 나타나는 기후변화와 같은 각종 자연재해 등 현실의 원인을 인간수의 증가와 현대 물질문명의 발달, 숲의 훼손에 따른 환경오염에 두고 기후 이변의 최소화, 스트레스의 해소와 인간의 안녕과 치유의 모색이라는 현실적 당면 문제를 숲이나 바다 등의 자연을 통해 해결하고자 함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판단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 자격기준을 충족하고,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실시하고 있으며(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산림청, 2005. Kor. Ministry of Forest Service, 2005), 2020년에는 치유농업(Kor. Ministry of Legislation)과 해양치유(Kor. Ministry of Legislation) 분야의 출범을 위한 제도적 준비를 마친 상태이다. 2005년 산림치유가 시작된 이후 지금의 현실에 이르기 까지 산림치유는 제도와 연구를 통해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다.

숲에서의 체험을 통해 인간의 치유를 이루고자 할 때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것은 생명이나 자연에 대한 철학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에는 생명이나 자연, 철학에 관한 강의는 1급과 2급 총 288시간의 강의 중에서 선택과목을 포함해 총 18시간에 불과하다<sup>1)</sup>. 2020년도 기준 산림치유 관련 학위논문 연구 총 572건 중 학위논문 202건(석사:145편, 박사:57편), 학술논문 370건 중 철학이나 감각과 관련된 논문은 거의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산림치유 사업의 현실과 문제점을 고찰한 후 무엇을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가 대표적인 전통적 전일주의 의학<sup>2)</sup>의 하나인 आयु르베दा의 5원소설과 연결해 산림치유의 발전을 모색하고

자 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첫째, आयु르베दा의 5요소인 공·풍·화·수·지는 곧 청·축·시·미·후의 5가지 감각물질을 지칭한다는 점에서 둘의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며(Kim, 2013), 둘째, 숲이라는 5감(五感) 물질의 집합 공간에서 진행되는 산림치유는 결국은 5감의 치유를 통해 인간의 치유를 위한 숲에서의 체험에 다름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Frawey, 2008).

산림치유가 우주적 차원과 영적 차원의 보완을 통해 명실공히 통합의학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आयु르베दा 이론을 산림치유에 응용해 진행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대의학은 대체로 자연을 포괄적으로 이해할 뿐 우주에서 일어나는 과정과 인체에서 일어나는 변화들 간의 연결을 찾지 못하고 있다(Kim, 2018). 그러나 인도의 5원소 이론은 이 둘의 연관성을 범아일여(梵我一如, Loka-Puruṣa Sāmya)로 답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인도 5원소의 연구를 통해 산림치유의 방향과 길을 모색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당위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결국 5감 물질을 통해 인간을 치유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산림치유와 आयु르베दा의 치유 목적은 같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आयु르베दा 이론과 서양 원소 이론과의 비교 고찰을 통해 얻어진 आयु르베दा의 전일성을 통해 산림치유사업의 전일적 발전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 연구 목적

현대는 그 어느 때보다 웰빙과 치유가 요구되고 있는 시대이다. 전일론의 필요성이 초래된 이유 또는 원인은 무엇일까? 홀리즘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실제적인 인간 치유의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

현재와 같은 통합과 치유의 시대에 필요한 것은 과학이 아니라 철학일 것이며, 인간 존재에 대한 사유일 것이다. 결코 쉽지 않을 이러한 문제를 본 연구자는 ‘나는 누구인가? 나와 세상 만물은 어떻게 시작되었고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의 의문으로 시작하려고 한다. 인류의 문화와 과학 또한 그러한 의문에서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렀을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탐색의 과정을 통해 현대 서양 정신의 뿌리에 접근해 그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치유사업의 전일적 접근과 발전에 도움이 되기 위해 진행하게 되었다.

이에 다음의 목표를 세워 본 연구를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आयु르베दा 사상의 전일성의 뿌리를 추론하고 그를 통해 산림치유사업의 현실적 한계의 원인을 추론하고

둘째, 산림치유사업 현장에서의 전일적 치유 계획의 수립과 진행 가능성을 조사하며

셋째,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의 생명 철학에 관한 강의가 확대되어 현장에서의 전일적 치유 프로그램의 통합을 모색하고자 한다.

<sup>1)</sup>참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산림치유지도사 1급(2015), 2급(2014) 표준교재 :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별 교육내용 및 기간은 1급의 경우 130시간(18과목), 2급의 경우 158시간(선택과목 포함 24과목)으로 하고 있으며, 1급 및 2급 각 과정별 교육 분야는 산림치유 대상 이해, 산림치유 자원 이해, 산림치유 실행, 기획·관리 등으로 구분하고, 각 분야별 교육과목을 별도로 둔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1급에서 ①산림치유 대상이해(스트레스와 건강, 산림환경과 건강심리, 예방정신의학, 심리요법, 카운슬링, 자기관리론) ②산림치유 자원이해(고급산림휴양, 고급수목생리, 고급산림의학, 산림약용자원론, 산림경관의 이해) ③산림치유 실행(산림치유 수요조사, 산림치유 프로그램 개발, 산림치유 프로그램 평가) ④기획·관리(조직 운영·관리, 프로그램 홍보·마케팅, 산림치유 리더십)를 교육하고 있으며, 2급에서는 ①산림치유 대상이해(보건학 개론, 환경성 질환, 생활습관병의 이해, 생리검사와 평가, 인체생리) ②산림치유 자원이해(산림의학 개론, 산림치유 자원론, 치유식물응용론, 산림기후의 이해) ③산림치유 실행(산림치유 레크리에이션, 산림스포츠의 이해, 산림치유 프로그램 활동지도, 응급처치) ④선택과목(자연과 생명윤리·생태위기의 실태, 근대문명의 반생태적 요소들, 생태문명 건설을 위한 인식과 실천), 산림생태학, 수목학, 산림휴양학,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교육하고 있다.

<sup>2)</sup>Shin, 2016. 「통합스트레스의학」, pp. 48-50. 전일주의 의학이란 기계론적 생의학에 대비되는 패러다임위에 수립된 의학으로 신체적 정신적 영적인 건강을 모두 포괄하는 의학을 말한다. 대표적인 전통적 전일주의 의학에는 आयु르베दा 의학과 중국의 중의학, 이슬람의 우나니 의학, 티베트의 장의학 등이 있다.

## 연구 방법

본 연구, 아유르베다의 5원소설과 서양 원소이론 비교 고찰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하였다.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표 수립, 연구방법을 제시하였다.

본론에서는 산림치유사업의 현실 또는 문제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연구의 배경을 고찰하고, '심신(心身)에 대한 동서양의 전통적 이해'와 '원소'와 '요소'에 대해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아유르베다의 5원소설'을 살펴보고 서양의 원소연구에 대해 고찰한 후 이 둘을 비교·고찰함으로써 아유르베다 사상의 전일성을 추론하고자 하였다

결론 부분에서는 이를 통해 산림치유가 통합의학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그 방향과 방법을 제안하였다.

## 본 론

### 산림치유의 동향

#### 산림치유의 법률적 정의

우리나라의 산림치유는 2005년 제정된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해 '치유의 숲'이 조성되었다. 동법 2조 4항에 따르면 치유의 숲이란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향기, 경관 등 산림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산림치유를 '향기, 경관 등 산림이 갖고 있는 다양한 환경요소를 이용해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산림치유지도사는 2011년 7월 동법 11조 2항에 따라 그 자격이 부여되었다.

#### 산림치유의 학문적 정의

산림치유의 학문적 정의는 숲 환경을 이용하여 심신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모든 활동으로 그 효과가 검증된 것(Park, 2010), 산림이 갖고 있는 다양한 환경요소 즉 경관·소리·향기·피톤치드·음이온·물·광선·기후·지형 등이 인간의 신체조성과 생리적·감각적·정신적으로 교감하여 심신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숲속의 활동(Lee, 2012), 인간이 산림생태와의 접촉으로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근본 기분을 알아차리고 긍정적으로 적응해가는 자기 치유과정(Kim, 2017)등 학자에 따라 그 표현이 달리 정의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숲이 갖고 있는 다양한 물질 요소 즉 경관·소리·향기·피톤치드·음이온·물·광선·기후·지형 등을 이용해 심신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영혼의 치유를 기대하는 자기 치유과정'이라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진행 내용

산림치유 프로그램이란 '산림이 지닌 치유기능을 극대화

하기 위해 산림치유인자를 활용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산림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대상에 맞게 숲에서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과정을 체계적으로 조직화 한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피톤치드·경관·공기·햇빛·소리·기후·운동 요소를 활용하여 식물요법, 물요법, 식이요법, 정신요법, 기후요법, 운동요법으로 프로그램화 하여 진행하고 있다(2019, Forest Welfare Promotion Agency)

#### 홀리스틱 산림치유체계로서의 산림치유

Jang(2020), Kim(2017), Park *et al.*(2018), Kim(2016) Kim *et al.*(2016) 등의 연구에 따르면 산림치유 프로그램은 그 효과에서 몸뿐 아니라 기분이나 마음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구의 대부분은 결과적 측면의 효과 분석일 뿐 기분이나 마음의 긍정적 변화와 영혼의 치유를 모색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과 체계는 제공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산림치유가 통합의학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홀리스틱 체계가 필요하고 따라서 그 체계에 대한 이론적 배경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는 점에서 이는 보완해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 아유르베다 5원소설과 서양 원소 이론 비교 고찰

#### 심신(心身)에 대한 동서양의 전통적 이해

예로부터 중국이나 인도로 대표되는 동양의 사상에서는 몸과 마음은 둘이 아니고 실질적 합일체라는 심신일원론(心身一元論)이 주류를 이루었다. 또한 이를 몸과 마음의 관계에 국한하지 않고 사람과 자연, 우주와의 관계에도 적용해 이들도 서로 다르지 않다는 범아일여(梵我一如)의 사상을 갖고 있었다. 특히 자연의학 분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인도의 아유르베다는 요가와 연관 지어 철학 또는 종교의 한 부류로서 이해되기도 하였으나 심신일원론에 따라 심신의 고통과 질병을 다스리고 장수를 추구해온 전통을 갖고 있다(Kim, 2018).

이에 비해 서양에서는 인간에게서 마음은 몸의 상태에 달려 있다는 심신이원론(心身二元論)을 유지해왔는데 이는 뉴턴의 물리학과 데카르트의 심신이원론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Shin, 2018). 그러나 인지과학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마음이나 행동의 변화가 신경계의 해부·생리적 변화를 가져오고, 신경계의 해부·생리적 변화가 심리·행동적 변화를 동반한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원론은 점차 설 자리를 잃게 되었다(Shin, 2018). 이와 같이 서구의 의학이나 과학은 더 이상은 그들의 과학으로 인간의 마음을 설명하지 못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서구의 의학이나 과학에서의 이와 같은 현실의 바탕에 심신이원론이 자리하고 있다고 할 때 그렇다면 그 원인의 뿌리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본 연구는 이에 대한 답을 추론하기 위해 물질의 구성과 원소에 대해 살펴보았다. 인류의 문화와 과학은 '나는 누구인가? 나와 세상 만물은 어떻게 시작되었고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에 대한 사색을 시

작으로 오늘에 이르렀을 것이기 때문이다.

### 원소의 이해

원소와 요소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원소(元素, element)는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성분’, ‘어떤 방법으로도 분해되지 않는 가장 작은 단위의 성분’을 말한다. 또 ‘화학적 방법을 통해서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물질’로 정의하기도 한다(Lee, 2017). 요소(element)란 ‘어떤 사물을 구성하거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될 근본적인 조건이나 성분’ 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데 필요한(要)바탕(素)’을 말한다(Daum, 2020). 이상의 사실을 통해 요소와 원소는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유르베다에서는 ‘5원소’라는 말 대신 전통적으로 ‘5요소’라는 말로 불리어왔으나, 본 연구의 비교 과정에서 혼동을 줄이고자 아유르베다의 ‘5요소’를 ‘5원소’로 통일해 사용하고자 한다.

### 아유르베다의 어원과 5원소설

아유르베다는 중국 전통의학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오래 된 자연의학의 하나로 꼽히며, 그 중심 원리는 ‘세계와 인간의 동일(梵我一如, loka-puruṣa-sāmya)’이다(Lee, 2020).

Āyur(생명·일상·출생에서 죽음까지의 삶의 모든 측면)와 veda(가장 깊은 수준의 지식)의 합성어인 아유르베다는 어머니가 자녀들을 돌보듯 모든 창조물을 돌보기 때문에 ‘모든 치유의 어머니’라고 부른다(Frawey, 2008). 흔히 인도의 전통의학, 장수학(長壽學), 생명학이라고 말하나 인도의 전통문화·종교·철학으로 이해하는 시각도 많다(Kim, 2018).

아유르베다의 목표는 현대 홀리즘의 목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아유르베다는 그 목표를 개인의 건강을 성취하는 것, 사회의 향상을 돕는 것, 영혼의 궁극적 해방을 이루도록 하는 것의 세 가지로 들고 있다(Frawey, 2008). 이는 결국 인간의 전일적 건강을 치유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인도 아유르베다 원소설의 서양의 원소이론과의 비교 고찰 과정을 통해 아유르베다의 전일성에 대해 탐구해 보고자 한다. 한편 대표적인 전일주의 의학의 하나인 중국 오행사상의 대략 이해를 위해서는 아래<sup>3)</sup>를 붙인다.

<sup>3)</sup>예로부터 중국에서는 우주 만물의 변화양상을 5가지로 압축해서 설명하는 5행(五行)으로 우주를 설명하였다. 즉, 다섯 개 우주 구성원소인 화(火)·수(水)·목(木)·금(金)·토(土) 원소들의 운행변전(運行變轉)을 오행이라고 하였다. 오행은 목(木)·화(火)·토(土)·금(金)·수(水) ‘5요소’와 ‘상생(相生)·상극(相剋)의 상관관계’로 이루어진다. 오행이란 음양(水火)의 변화가 한 단계 더 세분화된 것을 말하는데 즉 양(火)에서 한 단계 더 세분화되어 그 속에서 음양(水火)이 나오고 음(水)에서 한 단계 더 세분화되어 그 속에서 다시 음양(金水)이 나오는 것이며, 토(土)는 중보자(中補者)로 존재한다. 오행(五行)은 자연 재료의 개념에서 만물을 구성하는 원소의 개념으로 의미가 넓혀졌다. ‘목(木)은 뭉쳐있으나 약한 것이고, 화(火)는 정밀하지만 크지 않은 것이며, 토(土)는 실하나 흩어져 있는 것, 금(金)은 강하고 단단한 것, 수(水)는 많으나 실하지 못한 것’을 뜻한다. 양과 음은 쪼갤 수 없는 전일(全一)한 것의 양극으로서, 태극이라는 더 큰 관계의 틀 속에서 움직이며 도를 발현한다(Kim, 2010).

### 산림치유와 5원소설과의 연관성

아유르베다에서는 모든 질병의 공통된 원인으로 감각 접촉에 있어서의 과잉과 부족·부적절을 지목하고 있다. 또 마음의 치유를 가져오는 마음의 영양소는 음식과 감각기관을 통해 얻게 되는 경험과 감동·정신적 훈련을 통해 얻어지며, 인간이 늘 마주하는 음식·새·소리·접촉물·불 것 등이 몸 뿐 아니라 마음까지 변화시키므로 몸의 치유가 영혼의 치유와 다르지 않다고 말하면서(Frawey, 2008) 5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감각의 인식은 공·풍·화·수·지의 5종 원소가 5종 감각물질(5唯, 만마뜨라)로 인식되면서 감각기관인 이터·신·안·설·비·혀를 통한 유입으로 이루어지며, 감각의 긍정적인 인식이 곧 치유가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말한다(Lee, 2020). 결국 아유르베다의 이론에 따르면 치유는 5종원소에서 시작되는 것이며, 5원소의 불균형 시 질병이 초래되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아유르베다에서는 태양욕·물치료·흡을 이용한 치료·식이치료·향기치료와 같이 인체를 정화하기 위한 치료 도구로 5원소를 사용했다(Frawey, 2008). 이는 산림치유가 경관·햇빛·산소·음이온·소리·피톤치드와 같은 요소를 ‘치유의 6인자’로 설명(Forest Welfare Promotion Agency, 2019)하고 있다는 점에서 둘의 상관성을 발견할 수 있다.

숲은 그 자체로 공·풍·화·수·지의 커다란 집합체이며, 감각매개물질인 성·촉·색·미·향의 커다란 덩어리이다. 성·촉·색·미·향의 매개물질을 통해 형성된 예상인식은 마음(manas)이라는 내적 감각인 3구나 축과 상호 작용에 작용해 심리적 변화를 가져오고 그 결과로서 3도샤(바다, 뱀다, 까파)의 변화를 가져와 물질로서의 생물체는 영향을 받게 된다(Frawey, 2008). 이러한 과정의 설명을 통해 볼 때 숲의 오감물질을 통해 인간의 심신과 영혼의 치유가 모두 가능하다는 아유르베다의 이론은 5감각을 통해 숲과 사람을 연결 짓고 그를 통해 심신의 치유를 얻고자 하는 산림치유와 맥을 같이한다고 말할 수 있다.

### 아유르베다 5원소와 5감각의 이해

인도 전통에서는 오래 전부터 5원소 이론을 우주를 구성하고 체계화하는 원리와 이론으로 사용해왔다(Jang, 2020). 아유르베다의 5원소는 地Prthvi·水Jala·火Agni·風Vāyu·空Akāśa이다. 아유르베다에서는 5원소를 몸과 마음 전체에 퍼져있고 감각으로는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하는 원소로 설명하고, 5원소를 물리적 혹은 화학적 원소가 아닌 상징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한다. 흙원소(地)는 견고함과 안정성·활동에 저항하는 성질로, 물원소(水)는 유동성과 흐름의 성질로, 불원소(火)는 우리의 몸을 데우는 열과 동시에 빛(색)이라는 개념으로, 공기원소(風)는 움직임과 동적 에너지의 성질로, 에테르원소(空)는 무한한 양의 잠재적 에너지를 내포하는 존재로 설명한다(Jang, 2020).

한편, 감각은 공·풍·화·수·지의 5종 조대요소에서 비롯된 감각물질(5唯, 만마뜨라)이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옴으로써 인식되며, 이때 치유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오감을 통해 들어오는 감각물질을 오관 각각의 음식으로 받아들이며, 마음의 영양소는 이들 감각기관을 통해 얻게 되는 경험과 감동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라고 말한다. 즉, 오감의 경험과 감동이 몸의 치유 뿐 아니라 마음과 영혼의 치유에까지 이르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Kim, 2018). आयुर्वेदा의 5감각에 대한 이러한 측면은 현대의 스트레스의 원인에 대한 개념과도 맞아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아유르베다 5원소의 진화

태초의 우주는 아무 것도 없는 빈 공간의 상태였을 것이다(Bae, 2019). 5원소 중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첫 번째 원소인 에테르(空, Akāśa)이다. 빈 공간(에테르)의 상태에서 미묘한 진동이 일기 시작하면서 무언가 형상화되기 시작했고, 공기원소(風 Vāyu)는 이러한 진동에 의해 느껴지고 나타난다. 공기는 운동중인 에테르인 것이다. 진동과 함께 움직임이 커지면서 공기 요소는 마찰을 만들고 이 마찰로 열이 생기고, 열에너지 입자들이 모여 불(火, Agni)원소가 생겨났다. 불의 열로 인한 요소들의 액화로 물(水, Jala)원소가 나타났고 이것이 다시 고체화됨으로써 흙(地, Pṛthvi)이라는 원소가 생겨났다(Bae, 2019). 5원소는 이렇게 연결선상에서 유기적으로 발전하였다. 이 과정을 <에테르 ⇒ 공기 ⇒ 불 ⇒ 물 ⇒ 흙>으로 나타낼 수 있다(Jung, 2014).

### 5원소의 5:5 결합법칙(Pañca Pañcikaraṇa)

인도 베단타 물리학 이론에서는 감각적으로 인식하는 물질적 원소들은 이미 地 Pṛthvi·水 Jala·火 Agni·風 Vāyu·空 Akāśa의 모든 원소들이 각각 다른 비율로 혼합된 것이라고 본다. 이때 더 이상 분리되지 않는 미세분자 입자를 탄마뜨라(Tanmātra)라고 하며, 탄마뜨라는 다른 탄마뜨라와 결합하여 더 큰 원소의 계열로 확대하려는 성질의 공식인 '5:5의 결합법칙(5분작설, 탄마뜨라 법칙, Pañca Pañcikaraṇa)'에 따라 물질을 형성하면서 물질로서 나타난다. 이때 최종적인 물질 원소(Mahābhūta, Tanmātra)는 자체의 원소 1/2과 다른 4원소의 1/8씩으로 구성된다. 이때 한 원소의 물리적인 성질과 속성은 지배적인 기초물질에 의해 결정된다(Kim, 2013). 이를 표로 나타내면 Table 1과 같다.

Table 1. The law of associativity of the five elements - Tanmātra law

Mahā-bhūta	Ether (Akāśa)	Air (Vāyu)	Fire (Agni)	Water (Jala)	Soil (Pṛthvi)
Ether (Akāśa)	1/2	1/8	1/8	1/8	1/8
Air (Vāyu)	1/8	1/2	1/8	1/8	1/8
Fire (Agni)	1/8	1/8	1/2	1/8	1/8
Water (Jala)	1/8	1/8	1/8	1/2	1/8
Soil (Pṛthvi)	1/8	1/8	1/8	1/8	1/2

### 5원소의 인체와의 연관성과 3도샤(Tridosha)체질이론 인체와의 연관성

아유르베다 의학은 범아일여(梵我一如, loka-puruṣa-sāmya)

의 사상 즉, 대우주 안의 소유자인 인간 또한 이 다섯 가지 원소의 에너지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상을 바탕으로 이 사상을 인체의 건강에 대입해 발전시킨 의학이다(Jang, 2020). 이에 따라 5원소를 인체에 대입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인간의 몸 안에 있는 빈 공간이 에테르 원소(空, Akāśa)의 나타남이다. 예를 들면 구강·비강·순환기관·입파기관·모세관 등의 빈 공간이 그에 해당된다(Jang, 2020).

운동성의 원소인 공기(風, Vāyu)원소에는 인체 내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해당된다. 심장의 박동·소화 기관의 움직임과 연동운동·근육운동 등이 이에 속한다(Jang, 2020).

세 번째의 원소인 불(火, Agni)원소는 생화학적인 물질대사와 그들의 작용을 나타낸다. 체온조절과 소화작용·해독작용 등 물질의 대사와 관련된 효소·소화액의 기능 등이 불 원소에 의해 통제된다(Jang, 2020).

불의 열에 의해 액화됨으로써 나타나는 네 번째의 물 원소(水, Jala)에는 침·점액·임파액 등 우리 몸 안의 여러 액체들이 관계되며, 인체의 조직과 기관의 움직임에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필요한 원소이다(Jang, 2020).

마지막 흙(地, Pṛthvi)원소는 모든 물질계 즉 생명체와 무생명체의 형상 유지와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원소로서 골격을 이루는 뼈와 연골·손발톱·머리카락·근육·인대 등이 갖고 있는 딱딱한 성분이 이에 해당된다(Jang, 2020).

### 3도샤(Tridosha) 체질이론

인간에게 있어 다섯 가지 원소가 중요한 이유는 이것으로부터 각각의 기질과 체질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आयुर्वेदा에서는 5원소 중 어떤 것의 성질이 더 두드러지느냐에 따라 인간의 체질을 세 가지 기질로 나눈다. 이와 같은 이론을 트리도샤(Tridosha) 체질이론이라고 하며, 바따(Vata)·삐따(Pitta)·까파(Kapha)의 3가지 체질이 그것이다. आयुर्वेदा 의학에서는 바따·삐따·까파의 세 성분을 인간의 생물학적·심리학·병리학 기능을 조절하는 성분으로 보고 있다(Kim, 2015).

아유르베다는 인간은 모든 수준에서 대단한 생명력과 창조성을 지닌 존재라고 하는 홀리스틱 인간관을 갖고 있으며 바따·삐따·까파와 같은 세 가지 생물학적 기질이 신체적인 수준으로부터 가장 깊은 영적 수준으로까지 변형시키는 가능성을 갖는다고 하였다(Jung, 2014). 이는 체질의 전일적 역할 및 그 중요성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 서양의 원소 연구

4원소는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에서는 우주의 기본 힘들로 규정되었다. 원소론이 소멸된 이래로 현재 200여년이 지나긴 했지만, 서양의 원소이론은 인류사에서 근 2000여 년 동안 철학적 성찰의 이론적 근거로 서구 문화를 이끌어왔다. 뿐만 아니라 문화의 척도로서 과학과 예술에서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영향을 주었다(Choi & Lee, 2004). 고대 서양의 4원소설이 오래 동안 현대 서구 사상의 뿌리로 자리해

왔다는 이 같은 사실에서 아유르베다 원소설과 서양 4원소설 비교 연구의 당위성을 찾을 수 있다.

### 고대와 중세의 원소 이론

나는 누구인가, 세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관심을 갖고 그 원리를 찾고자 했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맥을 같이할 것이다. 이 같은 의문에 처음 그 이름이 등장한 사람은 고대 그리스의 탈레스(Thales, B.C 624년-546년)이다. 그는 세상의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는 물이며, 물이 기체·고체상(相)으로 바뀌어도 동일한 물이라고 주장했다(Park, 2009). 원소라는 것이 무엇인지, 세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관한 그의 의문은 신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당시의 사상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아낙시메네스(Anaximenes, B.C 585년-528년)는 공기가 만물의 근본 물질이라고 하였고, 헤라클레이토스(Heraclitus, B.C 540년-475년)는 ‘불’을 만물의 근본 물질로 보았다(Park, 2009).

엠페도클레스(Empedocles, B.C 490년-430년)는 원소가 한 가지라는 사실에 반하여 물·공기·불과 같은 원소들이 모두 원소가 될 수는 없는지 아니면 그 외에도 다른 원소가 있지는 않은지를 찾고자 했다. 또한 물질의 단단한 정도와 성질이 갖고 있는 성분은 어디에서 오는지와 같은 점에 의문을 가졌다. 그 결과 세상만물은 물·공기·불·흙의 네 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4원소설을 이끌어냈다. 또한 세상의 모든 물질은 이들 4원소의 조합에 따라 특유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Park, 2009). 원소의 비율에 따라 형태가 달리 나타나는 것이므로 모든 물질의 기본 성분은 같은 것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이는 입자철학을 바탕으로 한 동시에 근본 원소는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했다는 점에서 아유르베다의 5원소설, 중국의 우주이론인 오행사상과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 B.C 384년-322년)는 엠페도클레스의 4원소설을 옳다고 인정한 동시에 원소의 성질은 촉감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Park, 2009). 이는 보이지 않는 것·비물질의 세계·공의 배제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서양 물질론의 바탕 이론이 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 근대의 원소 연구

4원소설은 이후 약 2천 년이라는 실로 오랜 기간 지켜오다가 19세기 초반 ‘더 쪼갤 수 없는 물질이어야 원소’라는 보일(R. Boyle, 1627년-1691년)의 주장에 의해 파기되었다(Park, 2009). 그는 불은 원소가 아니고, 공기는 혼합물’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보일의 주장은 1766년 캐번디시(H. Cavendish, 1731년-1810년)에 의해 증명되었다(Park, 2009). 그는 금속과 산을 반응시키면 수소가 발생하는데, 이때 발생한 수소가 공기와 반응해 물이 되는 과정에서 공기의 20%가 사라진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발견하였다. 이로써 물은 원소가 아닌 화합물이며 공기는 여러 원소가 섞여있는 혼합물이라

는 사실을 증명했다(Park, 2009).

라부아지에(A. L. Lavoisier, 1743년-1794년)는 물질은 소멸하지 않으며, 무(無)에서 물질이 생기지도 않는다는 ‘질량 보존의 법칙’을 발견했다. 이에 따라 원소를 ‘물질을 조작할 때 화학반응에 의해서 분해되지 않는 물질’로 정의하였다. 돌턴(J. Dalton, 1766-1844, 영국)은 ‘물질을 나누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알맹이인 원자가 남는다’는 원자론(Atomic theory)을 최초 주장하였으며, 멘델레예프(D. I. Mendeleev, 1834년-1907년)는 63가지의 원소들을 모아 ‘원소 주기율표’를 만들었다(Park, 2009). 현재 총 118개의 원소가 발견된 상태이다(Daum).

### 현대의 원소 연구

현대의 원소연구는 고전 물리학의 뉴턴, 상대성이론의 아인슈타인, 빛은 입자라는 뉴턴의 입장에 대해 빛은 파동이라고 주장한 호이겐스(Jung, 2005), 양자역학을 비판하기 위해 만든 실험을 통해 결국 양자역학을 설명하는 실험을 하게 된 슈뢰딩거(Wikipedia, 2020), 불확실성의 원리’의 양자물리학자인 하이젠베르크(Shin, 2018), 숨은변수가설(hidden variable theory)을 통해 초양자 파동과 양자장을 설명한 뵘 Bohm (Kim, 2020)등의 물리학자와 함께 급속의 발전을 하게 된다.

### 아유르베다 5원소설과 서양 원소이론 비교

#### 아유르베다 5원소설과 서양 원소이론의 공통점 원소의 상징성

전술한 바와 같이 아유르베다에서는 5원소를 감각으로는 알 수 없는 미시 세계에 속하는 것이며, 단지 물리적 혹은 화학적 원소가 아닌 상징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한다(Jang, 2020). 즉, 공(Akāśā)은 무한한 양의 잠재적 에너지를 내포하는 존재인 동시에 소리의 전달자로, 風(Vāyu)은 움직임과 동적 에너지의 성질로, 火(Agni)는 열과 빛·색의 개념으로, 水(Jala)는 유동성과 흐름의 성질로, 地(Prthvi)는 견고함과 안정성, 활동에 저항하는 성질로 이해해야 한다고 하였다(Bae, 2019).

중국 오행이론의 원소 이해도 이와 비슷하다. ‘목(木)은 못처럼 있으나 약한 것, 화(火)는 정밀하지만 크지 않은 것, 토(土)는 실하나 흩어져 있는 것, 금(金)은 강하고 단단한 것, 수(水)는 많으나 실하지 못한 것’을 상징한다고 했다. 물질 보다는 현실과의 관계에 대한 상징성에 의미를 둔 것이다(Kim, 2010).

고대 서양의 4원소설 또한 공기·불·물·흙은 우리가 일상에서 볼 수 있는 물·공기·불·흙과 같다고 할 수 없으며, 단지 그 성질로서 이해한다고 했다는 점에서 아유르베다 원소이론의 상징성과 맥을 같이 한다.

#### 원소의 결합성

아유르베다에서는 ‘5:5의 결합법칙(5분작설, Pañca Pañcikaraṇa)

을 통해 감각적으로 인식하는 물질 원소들은 地Prthvi·水Jala·火Agni·風Vāyu·空Akāśā의 원소들이 각각 다른 비율로 혼합된 것이라고 했다(Kim, 2013). 이는 세상의 모든 물질은 공기·물·불·흙 원소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이들 4원소의 비율에 따라 물질의 형태가 달리 나타나는 것이라고 주장한 엠페도클레스(Empedocles)의 주장(Park, 2009)과 유사하다. 어떤 원소를 교환함으로써 다른 원소로의 변환이 가능하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 또한 아유르베다의 5:5 결합법칙과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우주 만물의 변화는 5원소 즉 화(火)·수(水)·목(木)·금(金)·토(土) 원소의 운행변전(運行變轉)으로 나타나는 것이며, 양(火)에서 한 단계 세분화되어 그 속에서 음양(木·火)이 나오고 음(水)에서 한 단계 더 세분화되어 다시 그 속에서 음양(金·水)이 나오는 것이라고 한 중국의 오행이론(Kim, 2010)과도 상통한다. 음양의 절대성보다는 물질의 속성이나 원소의 결합을 강조했다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현대 물리학 이론 또한 원자는 양성자·중성자·전자의 구성비에 따라서 그 종류가 결정되고, 그러한 원자가 조합을 이뤄 지구상의 모든 물질이 만들어진다고 한 점에서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동서양의 원소설은 ‘원소의 결합성’면에서 공통된 특징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아유르베다에서는 5원소 이론에서 나아가 이를 만물이 5원소의 배분으로 이루어졌듯이 인간 또한 地Prthvi·水Jala·火Agni·風Vāyu·空Akāśā의 5요소로 구성되었으며, 이를 원소의 배분 비율에 따라 체질이 만들어진다는 3도샤(Tridosha) 체질이론으로 발전시켰다(Frawey, 2008). 이에 따르면 인간의 몸은 3도샤에 의해 지배되는데, 3도샤가 정상 상태에 있을 때는 건강을 유지하지만 3도샤의 균형이 무너지면 질병 상태가 된다는 점에 5원소 배분의 중요성이 있다고 말한다(Jang, 2018). 이와 같은 아유르베다의 3도샤 이론은 바따·벤탠·까파와 같은 인간의 생물학적 기질이 신체적인 수준으로부터 가장 깊은 영적 수준으로까지 변형시킨다(Jung, 2014)는 전일적 기능과 유기체의 균형을 강조하는 현대 생리학의 항상성(homeostasis)이론과 상통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항상성은 유기체가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성질 또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며, 항상성을 상실한 상태를 이상성(allostasis)이라고 한다(Shin, 2013).

### 원소의 진화와 환원

양자 물리학의 봄(David Joseph Bohm)은 ‘숨은변수가설(hidden variable theory)’을 제안한 이후 파동함수를 단지 확률로 생각하지 않고 실제의 장(場)으로 생각하고, 우주의 허공은 텅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초양자장(superquantum field)으로 충만 되어 있으며 모든 물질은 원자로, 원자는 소립자로, 소립자는 파동으로 환원된다고 하였다(Kim, 2020). 뿐만 아니라 역으로의 변화 또한 가능해 파동이 소립자로, 소립자가 원자로, 원자가 분자로, 분자가 물질을 이루게 된다고 주장하였다(Kim, 2020). 이 같은 양자물리학의 물질진화과

정은 에테르가 공기가 되고, 공기가 열과 불을 만들며, 불의 열이 물을 만들고, 물이 다시 흙이라는 물질로 진화된다는 아유르베다의 물질진화 과정과 닮았다(Kim, 2015). Oh(2017)는 그의 연구<sup>4)</sup>를 통해 물질의 진화와 환원에 관한 봄의 이론을 초사상과 연관 지어 풀고자 한 바 있다.

### 아유르베다 5원소설과 서양 원소이론의 차이

#### 수(數)와 내용에서의 차이

서양의 4원소설(공기·불·물·흙)은 아유르베다 5원소와 그 수에서 차이가 난다. 중국의 오행 원소와 비교할 때 그 수는 같으나 화(火)·수(水)·토(土)가 공통되는 반면 공(空)과 풍(風)이 없고 목(木)·금(金)이 대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내용에 있어서 아유르베다 5원소설과 서양의 4원소설은 모두 같으나 그 중 공이 포함되지 않은 차이를 갖고 있다. 서양의 4원소설에서는 물리적인 요소만을 원소의 구성요소로 삼았으며, 원소를 촉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실재하는 물질, 눈에 보이는 물질을 원소로 한정했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 부분은 보이지 않는 것·비물질의 세계·공을 배제함으로써 서양 물질론의 바탕이 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공의 부재를 빼고는 서양 원소설의 내용은 중국의 5행 원소이론과 같다. 중국의 오행(五行)이론에서는 원소란 사람이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재료 즉 실재하는 물질이어야 한다고 정의하고 구성했다는 특징을 갖는다(Kim, 2010).

#### 체질론에서의 차이

고대 이래로 중세 이후까지 서구에서도 체액설이 있었다(Lee, 2017). 서구에서는 혈액·점액·담즙·흑담즙의 4가지체액의 배분 비율에 따라 사람들의 천성이나 기질이 결정된다고 하는 체액설에 기반한 체질설을 오래 동안 믿어 왔다(Lee, 2017).

그러나 아유르베다의 체질이론은 물질의 구성에서 범아일 여梵我一如의 사상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구별되는 한편 이러한 생물학적 체질이 몸의 수준에서 시작하여 가장 깊은 영적 수준까지 변형시키는 가능성을 가졌다고 하는 특징을 갖는다(Jung, 2014). 이는 몸과 마음의 전일성 측면의 통찰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 서양 원소이론과의 차이에 따른 5원소설의 특징

#### 공공 (Śūnya, zero)

위와 같은 고찰을 통해 중국과 서양에서는 물질에 포함시키지 않은 공공이 아유르베다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유르베다 5원소설의 가장 큰 특징임을 알 수 있었다. 비물질의 세계·보이지 않는 세계·공의 세계인 정신과 영혼을 채우고

<sup>4)</sup>인문학자 오태석은 「데이비드 봄 양자론 ‘숨은변수이론’의 인문학적 검토」를 통해, ‘노장사상의 사유를 통해 불 때 불교에서 말하는 보이는 색以實은 근저의 공에서 온 것이므로 색과 공은 一即多, 多即一에 다름 아니다 라고 한 부분과 봄의 주장은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하였다(Oh, 2017).

치유하는 것이 홀리즘의 목표이고 완성이라는 점에서 아우르베다의 이 같은 특징을 홀리즘에 대입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만질 수 있어야 원소’라고 정의한 바 있다(Park, 2009). 이 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물질적 사고는 그것이 서양 사상의 뿌리가 되어 근 2천 년 간 물질문명을 키워온 것은 아닐까, 서구의 과학이 이제야 보이지 않는 세계·비물질의 세계·無의 세계·비존재의 세계에 관심을 갖고 그 연관성을 증명해내고자 하는 것은 이에 대한 반성·동양에 대한 이해와 고백의 다른 측면은 아닐까 라고 추론하게 한다. 이와 같은 고찰의 결과空要素의 부재가 서양 문화의 한계에 영향을 준다는 가설의 정당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물리학의 관점에서의 공Śunya은 실제적인 입자와 공간 사이의 역동적인 관계다. 공간연구자 Seo(2001)는 空은 Śunya로서 참으로 ‘살아있는 空’이고 창조와 파괴의 끝없는 리듬 속에서 변화한다. 그러므로 空은 ‘充’이라고 하였다. Kim (2020)은 空을 ‘가득 찬데서 나오는 강력한 에너지 흐름’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空을 원소이며 실재라고 하는 아우르베다의 空사상(Śunyavāda)이 현대 물리학에서의 ‘空’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아우르베다의 현대 양자물리학과 유사성은 아우르베다의 사상이 현대와 같이 실험과 수학으로 증명이 불가능했던 고대에 전개된 이론이라는 점에서 핵심을 짚은 통찰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아래 Shin(2001)의 주장<sup>5)</sup>과 대입해 볼 때 결국 현대의 물리학이 오래 된 동양의 정신을 실험으로 증명해 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Oh(2017) 또한 노장 사상과 양자물리학 두 분야의 이해를 위해 ‘숨은변수이론’에 대한 집중 고찰의 필요를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인도의 공(空, zero)사상이 불교 전통의 空사상의 정립에 영향을 주어 오랜 시간 道의 성취와 수행에 영향을 주어왔다는 점에서 ‘숫자 0의 발견<sup>6)</sup>’과 ‘空사상의 불교적 의미<sup>7)</sup>’를 붙인다.

### 3도샤(Tridosha) 체질이론

본 고찰의 결과 아우르베다의 두 번째 특징으로 3도샤 체

<sup>5)</sup>불확실성의 원리’의 양자물리학자인 하이젠베르크는 ‘기본 입자 자체를 물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물질은 기본 입자가 자신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형태이다. 에너지는 기본 입자의 형태를 취하고 그 형태 즉 물질로 나타남으로써 현상계에 속하게 된다’고 하였다. 영적 진화를 통한 보편적 구원을 주창한 인도의 철학자 스리 오로빈도(1872-1950)는 ‘물질이 에너지의 형태로 융해된다는 것을 과학이 증명한다면 그 자체로 보편적인 근본 진리를 발견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결국 양자물리학에서의 물질은 물질의 세계를 넘어 세상의 본질이나 존재의 근원을 사유하는 관념의 세계에 들어서고 ‘물리physics를 넘어meta-’ 형이상학metaphysics이 된 것이다(Shin, 2018).

<sup>6)</sup>‘숫자 0의 발견’ :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는 진공과 0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것은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무신론과 이어졌기 때문이었다. 이후 서양에서는 약 1000년 동안 진공과 0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인도에서는 자신들이 믿는 신의 가르침을 제대로 깨닫기 위해 무(無)와 무한을 연구한 결과 ‘0의 발견’이라는 성과를 이루게 되었다. 산스크리트어로 ‘0’은 ‘순야(Sunya, शून्य śūnyá)’라는 말로 ‘형상 없음’, ‘빈 상태’의 뜻을 갖는다.’ ‘숫자 0’과 아우르베다의 空要素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Cho, 2015).

질이론을 들 수 있다. 서구에서도 4가지의 체액의 배분 비율에 따라 사람들의 천성이나 기질이 결정된다고 하였으나 이는 사람의 증상을 통해 결과적으로 정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Lee, 2017). 그러나 아우르베다의 체질이론은 물질의 구성에서 사람과 자연, 우주와의 관계가 모두 같다는 범아일여梵我一如의 근원적 사상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생물학적 체질이 신체적인 수준으로부터 가장 깊은 영적 수준을 변형시키는 기능을 가졌다는(Jung, 2014) 점에서 서양 체액설과는 다른 특성이며, 이는 몸과 마음의 전일적 특성에 대한 통찰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아우르베다의 3도샤 체질이론은 현대 생리학의 항상성과 면역, 한의학 정기精氣의 개념과 상통한다는 점에서 현대의학과 연결점을 갖는다.

### 심신일원론적 사상

아우르베다에서의 심신일원론적 사상(Frawey, 2008)에 대한 고찰은 앞의 3도샤(Tridosha) 체질이론을 통해서도 살펴 보았다.

아우르베다는 인도의 종교 사상을 인체의 건강에 대입해 발전시킨 전통의학이다(Kim, 2018).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이 에테르·공기·불·물·흙의 5요소로 이루어졌듯이 인간 또한 5요소의 에너지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각각의 원소를 인체에 대비시킨다. 대우주의 에테르(空) 요소는 인체의 입·코·호흡기관·순환기관·임파관·모세관 등의 빈 공간에 대입하는데 특히 아우르베다의 차크라 이론에서는 호흡기관에 해당하는 5번째 차크라(비슈다 차크라)를 육체적 성장과 영적 성장 사이의 균형을 관장하는 몸과 마음의 연결 통로라고 설명한다(Sharaman *et al.*, 2014). 숨을 통해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고요해진다는 숨고요·몸고요·마음고요를 말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空을 통한 空의 체움인 숨이 인간의 몸·마음·영혼의 질병과 치유에 순차적으로 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고요는 명상이나 호흡 수련을 통해 이룰 수 있는데 이는 결국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대목이며 동시에 空要素가 몸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고, 마음을 통해 몸을 치유하는 현대 심신의학(Psychosomatic medicine)의 전일적 치유와 맥을 같이 한다(Shin, 2018)는 점에서 심신일원론의 동양사상이 현대 통합의학이 추구하는 방향과 만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sup>7)</sup>‘공사상’의 의미 : 空사상(Śunyavāda)이란 공(空)을 실재의 특징으로 여기는 대승불교 중론(Madhyamika)의 철학이론으로 Nāgārjuna에 의해 형성되었다. 空은 한자어이며 산스크리트 Śunya에 대한 역어이다. Śunya의 형용사적 의미는 ‘비어 있는, 불모의, 버려진, 부재의’이며, 명사적으로는 ‘공, 없음, 부재’의 뜻을 갖는다. 수학적으로 Śunya는 아라비아 숫자로 ‘0’이다. 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0’은 0를 기점으로 음수와 양수로 구분된다. 즉, ‘0’은 양수도 음수도 아니다. 두 양극을 초월해 있다. 모든 부정적, 긍정적 양극을 초월하는 空 ‘0’이며, 전환점이다. ② ‘0’은 또한 모든 산술계산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그 자신이 된다(Seo, 2010)

## 결론

본 연구는 서양의 과학이나 정신의 한계에 대한 인식에서 홀리즘(holism)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고 할 때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산림치유사업의 전일적 접근과 발전에 도움이 되기 위해 진행하였다. 그 방법으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자연철학의 하나인 आयुर्वेदा 이론을 서양의 원소 이론과 비교하여 서양의 과학과 동양 정신의 통합을 모색하고, 그를 통해 산림치유사업의 전일적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다음과 같이 결론을 정리하였다.

첫째, 본 연구의 고찰 과정을 통해 현대 서양 과학의 한계의 원인을 쉼원소의 부재와 심신이원론적 사고로 정리할 수 있었다. 이에 आयुर्वेदा의 특징인 조사상과 심신일원론을 바탕으로 한 심신의학적 접근을 통해 인간의 홀리스틱 접근은 가능할 것이며, 전일적 치유의 한계는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전일적 통합치유 개념의 이해 또한 आयुर्वेदा의 조사상, 3도샤 체질 이론, 심신일원론의 이해를 통해 가능하였다. 따라서 आयुर्वेदा 사상 즉 심신일원론과 3도샤 체질 이론, 쉼요소를 응용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계획과 실행으로 산림치유 사업의 전일적 통합의학으로서의 발전은 가능할 것이다.

셋째,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에서 आयुर्वेदा 철학의 전일적 치유 개념과 생명에 관한 강의 확충으로 현장에서의 전일적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확대되기를 기대해 본다.

## References

- Bae, K.S. 2019. A study on ayurvedic's theory of 3 dosha and the five elements constitution theory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Sunmoon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Asan.
- Cho, G.H. 2015. The discovery of zero - Donga Science column, Scienceall. <http://blog.daum.net/bobae5656/1376>
- Choi, S.M. and J.S. Lee. 2004. Cultural history of the four element metaphor. Research project of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doi: 10.1016/0006-291x(75)90506-9
- Frawey, D. 2008. Natural medicine ayurveda. Shree Krishnadas Ashram, Changwon.
- Genius education editorial department. 2020. Vocabulary master integrated course. Daum Encyclopedia, Seoul.
- Grof, S. 2012. Fusion of ancient wisdom and modern science. Hakjisa. Seoul.
- Huxley, A. 2016. The perennial philosophy. Kimyoungsa, Paju.
- Jang, C.S. and C.D. Koo. 2019. The effects of after-school forest healing program activities on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and self-efficacy improvement, Kor. J. Environ. Ecol. 31(6): 595-605.
- Jang, E.J. 2020. Aromatherapy's chakra awakening mechanism study. Sunmoon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Asan.
- Jang, H.S. 2018. A study on the selection of forest healing program awards. Sunmoon University Master's Thesis, Asan.
- Jung, M.S. 2014. A holistic healing system of ayurveda. Korean society for holistic convergence education. Holistic Converg. Edu. Res. 18(2): 117-135.
- Kang, S.K. 2001. How is medicine organized? Among the thesis presented at Hallym University's Kor. Acad. Philos. Sci. <Science War>, January 27-28, 2001.
- Kim, J.Y. 2017. Effects of forest healing program on mental health of middle-aged and old wome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Chungju.
- Kim, M.S. 2018. Ayurvedic view of mind and body disease and health. Cultural Exchange Res. 7(4): 179-197. doi: 10.30974/kaice.2018.7.4.179.
- Kim, S.H. 2010. Comparative study of ayurvedic and sasang medicine. Dongguk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Seoul.
- Kim, S.M. 2013. A Study on the Meaning of the Five Elements(Pañca Mahābhūta) in Yoga Training. Indian Studies 18(2): 78-106.
- Kim, S.M. 2015. A study on healing yoga based on the constitutional theory of ayurveda. Sunmoon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Asan.
- Kim, S.W. 2020. Trembling and reverberation. Dongasia Pub., Seoul.
- Kim, Y.H. 2016. Analysis of preference for forest healing programs according to stress level. Kor. Soc. Environ. Ecol. 30(3): 434-442.
- Kim, Y.S. Kim, D.J. Hwang, Y.J. Lee, B.C. 2016. Experience according to time spent in the forest, immersion, health perception and psychological perception analysis, Kor. J. Environ. Ecol. 30(26): 271-276.
- Korean Ministry of Legislation. 2020.03.24. Act on R&D and promotion of healing agriculture. (Abbreviation of healing agriculture act).
- Korean Ministry of Legislation. 2020.02.08. Act on the utilization and management of marine healing resources.
- Lee, G.L. 2020.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drya and disease in Caraka-samhitā. Indian Res. 25(2): 35-69. doi: 10.4103/0974-8520.92540.
- Lee, Y.H. 2012. A study on forest management techniques for healing forests. Kookmin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Seoul.
- Lee, J.D. 2017. Friendly science dictionary-chemistry. Bookcaravan, Seoul.
- Liz. Simpson, 2014. The book of Chakra Healing. Zenbook, Yangpyeong-gun.
- Norberg-Hodge, H.. 2001. Ancient future. Nogsae-gyeongon Sa, Daegu.
- Oh, T.S. 2017 David Bom's Quantum theory a humanities review of the hidden variable theory. Chin. Liter. J. 106(3):

- 365-393.
- Park, B.J. 2010. An experimental approach to forest healing using forest recreation activities: Focusing on landscape appreciation and walki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 Park, C.E. 2018. Effect of forest healing programs on resilience and happiness of employees. *Kor. J. Envir. Ecol.* 32(6): 667-675.
- Park J.W. 2009, History of science and technology development, Jayuacademy, Seoul.
- Robelli, C.(translated by H.J. Kim). 2016. Physics at every moment. Sam & Parkers, Seoul.
- Seo, J.S. 2001. The meaning of Śūnya. *Humanities Studies.* 6(2001): 167-207.
- Sharaman, S., J. Bodo, and J. Bejinsky(Translated by Y.W. Choi). 2014. Chakra healing handbook. Shree Krishnadas Ashram, ChangWon.
- Shin, K.H. 2018. Integrative stress medicine. Hakjisa, Seoul.
- Shin, K.H. 2018. An introduction to psychoneuroimmunology. Hakjisa, Seoul.
- Wilber, C. 2010. The marriage of sense and soul. Beomyangsa, Koyang.
- Wilson, E. 2014. Biophilia, Seoul Science Books, Seoul.